

# 군산시, 국가예산 확보 행정력 집중

### 시, 추진보고회 개최...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등 현안 논의

시민이 함께 하는 자립도시 군산시가 차질 없는 시정 운영을 위한 국가 예산 확보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강임준 시장 주재로 부시장, 국소장, 관과소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국가예산 발굴 및 추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군산시는 내년도 목표액

을 신규 49건에 1,449억원, 계속사업 272건 1조1,516억원 등 321개 사업에 총 사업비 12조4천억원 중 1조3천억 규모로 정했다.

사업 내용으로는 신규 사업 ▲상용차산업혁신성장 및 미래형산업 생태계 구축사업(1,930억) ▲재생에너지 국가종합 실증연구단지 구축(250억) ▲새만금 고군산군도 내부도로 개설 공사(222억) ▲대형구조물의 설치 및

운송지원 인프라 구축사업(330억) ▲순속 모험 체육 예술 복합 근린공원 조성(220억) 등 49개 사업이다.

사업은 ▲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 센터 구축사업(240억) ▲군산 스마트 물류센터 건립(100억)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혁신타운 조성사업(280억)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109.5억)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5억) ▲근대문화역사공간 재생 활성화사업 등 272개 사업이다.

이 날 보고회에는 중고차수출 복합

단지 조성(1,140억)과 해상풍력전문 연구센터 설립(450억) 등 신규 사업을 포함해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 주요 역점사업 추진에 대한 설명회도 함께 진행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각 부처나 기획재정부 예산 전문가와 논리 타당성에서 지지 않도록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논리를 개발할 것”을 당부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군산을 방문해 군산지역 상가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 ‘경제 활성화 효과’ 군산사랑상품권, 우수사례 선정 ‘겉경사’

고용 및 산업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군산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발행하기 시작한 군산사랑상품권이 경제 활성화 효과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군산사랑상품권이 행정안전부 주관한 ‘지역사랑상품권 설명회’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등 전국 수법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군산

시는 우수 사례 발표에서 군산사랑상품권이 4개월 만에 8,500여개의 가맹점 모집, 910억원 상품권 판매 등의 기록적인 성과를 거뒀고 상품권 발행의 준비 과정, 지역경제 효과, 시민 호응도 등 자세한 설명으로 지자체 관계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다.

군산시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 경기도 시흥시, 인천시 서구, 완주군, 전남 영광군 등 많은 지자체

에서 방문을 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기존에 상품권을 판매하지 않았던 금융기관의 상품권 추가 판매기관 지정 요청도 쇄도하고 있다. 이에 시는 올해 들어서도 식지 않고 판매되는 상품권의 인기에 기반한 상품권 500억원을 완관하고 500억원을 추가로 발행했다.

이와 함께 시대 흐름에 맞춰 청장년

층들의 사용편의, 모바일 상품권 발행 및 모바일 소포물 구축 등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부정유통 방지 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품권 운영에 대한 지역경제(상권) 영향 분석과 부정유통 관련 대책 및 타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기관 용역할 예정으로 지역 상권이 살아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 군산시-서민금융진흥원, 전통시장 소액대출 지원 협약

군산시와 서민금융진흥원이 지역 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소액대출 지원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18일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강임준 시장을 비롯해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경구 군산시의회 의장 등과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강임준 군산시장은 서민금융 지원 대책건의와 군산사랑상품권 국비지원, 수송등 산업은행 부지 조기 개발, 군산형 일자리 추진,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및 한국GM 군산공장 활용방안 등 5가지 주요현안을 금융위원장에게 건의했다.

협약식을 마치고 행사에 참석

한 집행들은 시장상인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지역경제 동향과 소상공인들의 금융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월대보름을 맞아 장보기를 군산사랑상품권으로 부럽게 생활필수품을 구입해 지역 내 복지시설에 전달했다.

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시민금융 애로사항청취와 서민금융지원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군산공설전통시장과 군산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최 위원장은 “군산시 지역경제가 가장 어렵고 지원이 절실한 시기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설치된 만큼 실제 취약계층의 수요를 파악하고 더욱 깊이 있게 상담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 군산시보건소

####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실 운영

군산시보건소(소장 정형태)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을 위해 오는 3월부터 12월(7, 8월 제외)까지 ‘별관튼튼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측정 및 건강 상담 ▲고혈압·당뇨의 이해 및 합병증 예방법 교육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식이요법 ▲올바른 운동법 교육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된다.

보건소는 교육과 함께 고혈압·당뇨병에 대한 적절한 자가 관리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심뇌혈관질환 예방 홍보활동도 실시할 예정이다.

정형태 보건소장은 “심뇌혈관질환은 예방이 중요한 만큼 이번 교육으로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발생이 감소되고 건강 수명이 연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 교육 대상자는 상시모집하며 프로그램 참여 신청 및 문의는 군산시 보건소 건강관리과(☎460-3286)로 하면 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 군산시,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보고회 및 선포식



군산시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보고회 및 선포식을 개최했다.

군산시는 국가안전대진단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18일 2019 군산시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보고회 및 선포식을 개최했다. 군산시는 안전대진단 기간인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61일간 위험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 최근 사고발생 시설 및 국민 관심 분야,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 등 717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안전점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점검자와 확인자가 모두 실명을 기재하는 안전점검 실명제를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공개한다. 위험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점검대상 전체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발견된 위험요소 중 즉시 조치 가능한 사항은 현장조치를 추가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위험 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직접 생활 속 안전 위험요소를 신고하고 안전 관련 법과 제도 개선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훈련일정은 해양경찰청 주관 년 1회, 서해지방청 및 군산서 주관 분기 1회 이상 실시하며 수난구조 종합훈련과 현장과 연계한 구조본부 운영 훈련, 자체훈련 등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군산해경은 지난 해 총 4회에 걸쳐 수난대비 기본훈련을 실시해 21개 기관·단체에서 약 840여명이 참여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 군산해경, 해양안전사고 예방 협력체계 구축

군산해양경찰서가 각종 해양사고에 대한 효율적 예방과 신속한 구조를 목적으로 수난(水難)대비 기본 훈련 계획을 마련했다.

18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해양사고 시 각급 구조본부와 수난구조협력기관, 수난구조민간단체 상호 간 역할을 이해하고 수난구조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9년 수난대비 기본훈련

계획을 발표하고 시행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수난대비 기본훈련은 해양재난관리 및 협력체계 고도화를 위해 해양사고 시 현장 조치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합동훈련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기로 하고 유관기관 참여는 훈련을 단계별로 세분화해서 실시하기로 했다.

## 영농활동 안전사고 대비 익산시, 종합보험 가입비 지원

익산시는 영농활동의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농기계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대인·대물·자차 수리비·자기신체상해 보상 등 일반 자동차 보험과 같은 사고 보상을 농기계에 적용시켜 보상한다.

이 보험은 전체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50% 중 25%를 시에서 추가 지원해 농업인은 전체 보험료의 25%만 부담하면 된다.

가입 대상은 경운기, 트랙터, 콤팩트,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광역방제기, SS분무기, 베일러(결속기), 농

용굴삭기, 농용로우더, 농용동력운반차, 항공방제기(무인헬기) 12종을 소우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지역농협 포함) 종사자 중 농기계 운전이 가능한 자다.

가입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가까운 지역 농·축협 영업점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농촌지원과(850-4323)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복지향상을 위해 많은 농업인이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해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비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시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 N·1

엔·원

산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명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이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